

<블록형 건설게임>

‘마인크래프트’ 하면 코딩 실력 쑥쑥?

SKT-MS, 게임으로 코딩 교육

5개 도시 매장서 무료교육 실시
알고리즘·사고 중요성 설명하고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코딩능력 ↑



지난 11월 30일 SK텔레콤 서울 보신각점에서 초등생 대상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코딩 시범 교육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과 미국 정보기술(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코딩 교육 분야로 확대된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달부터 서울과 부산·대전·대구·광주 5개 도시 매장에서 블록형 건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코딩 무료 교육 및 직장인 대상 ‘오피스 365’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종류의 블록으로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탐험하는 게임이다.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코딩 프로그램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딩 능력을 기르고, 디지털 역량 및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이번 코딩 수업은 알고리즘과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실제 코딩을 통한 마인크래프트 게임 만들기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그간 ‘행복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버트 로봇 기반의 초등 저학년 대상의 코딩 교육을 진행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해 초등 고학년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인크래프트’ 코딩 교육 희망자는 SK텔레콤 온라인 티월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간 협력은 지난 5월 박정호 사장과 사티아 나델라 CEO가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 ICT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약속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사 협력은 올 하반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과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인 ‘프로젝트 엑스 클라우드(xCloud)’ 시범 서비스론칭에 이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구글과 손잡고 ‘VR크리에이터’ 양성

‘VR 크리에이터 랩 서울’ 운영
1000만원 지원…참가팀 모집

LG유플러스가 가상현실(VR) 크리에이터 양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구글과 함께 VR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VR 크리에이터 랩 서울’을 운영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VR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은 그동안 해외에서만 진행됐으나 LG유플러스가 VR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했다.

‘VR 크리에이터 랩 서울’은 참가 팀 당 1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VR 콘텐츠 제작용 카메라 등 전문 촬영 장비도 제공한다.

아울러 촬영 및 편집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멘토링도 진행해 V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모델들이 ‘VR 크리에이터 랩 서울’ 운영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이번 프로그램은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는 오는 30일까지 유튜브 공식 페이지로 지원하면 된다. 참가자들의 콘텐츠 기획안을 토대로 내년 1월 최종 15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콘텐츠를

제작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 국내 최대 VR 플랫폼인 ‘U+VR’에서 독점 공개된다.

앞서 LG유플러스와 구글은 K팝 스타 아이돌의 VR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5G 시대의 핵심 서비스인 VR를 활성화시키는 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나인 기자

현대트랜시스, 獨 기업과 손잡고 미래차 시트 개발

현대트랜시스가 독일 자동차 시트 메커니즘 기업 브로제와 미래 자동차 시트 공동 개발을 위해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

현대트랜시스는 경기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브로제 그룹 시트사업부 산드로 살리베 사장과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여수동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트 부품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다변화, 다기능, 고강성, 경량화를 요구하는 미래차 시트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1908년 설립된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브로제는 차량용 도어, 시트, 전동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약 80여개의 완성차와 40여개의 부품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해 글로벌 부품기업 순위에서 39위(매출액 기준)를 기록했다. 전세계 신차 2대 중 1대에 브로제

부품이 탑재돼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모빌리티 시대에 자동차 실내는 휴식, 여가, 업무, 취침 등 모든 일상 생활이 가능한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2024년 신기술이 적용된 시트 양산을 목표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추후 협업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황창규 “올 최고 성과는 5G”

<KT 회장>

KT ‘KT인상 시상식’ 개최

‘5G 경쟁력 강화 TF’에 대상



황창규 KT 회장이 1등 KT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KT

황창규 KT 회장이 “KT가 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460여명의 임직원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석한 ‘2019년 1등 KT인상 시상식’에서다. 올해 1등 KT인상 대상 역시 5G 상용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 팀에 돌아갔다.

KT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옥에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460여명의 임직원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등 KT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째 열린 1등 KT인상은 6만여명의 KT그룹 임직원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추진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제도다.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단체를 중심으로 포상을 하는데 KT뿐 아니라 그룹사 협업도 시상한다.

올해 1등 KT인상 대상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5G 경쟁력 강화 TF’에 돌아갔다. 5G 경쟁력 강화 TF는 올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대와 5G 가입자 확산을 위해 8개월 동안 불철주야 노력했다는 평이다. 5G 경쟁력 강화 TF에게는 총 3억원을 포상했다.

이와 함께 4개 TF에서 최우수상을, 5개 TF 및 그룹사에서 특별상을, 6개 TF 및 프로젝트 그룹에서 혁신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지난해 신설된 사회적 가치기여상은 1등 워크숍 외부확산 T F와 DMZ 대성동 5G 빌리지 TF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에는 각 3000만원, 특별상·혁신상·사회적 가치기여상에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수상도 눈에 띄었다. 올해 KT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선언을 한 바 있다. 국내 AI 기기 최초로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한 기가지니를 만든 주역인 ‘AI 1등

TF’와 AI 영상보안솔루션의 성장을 일군 ‘그룹 기가지니 1등 TF’, AI로 기계소리를 분석하고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가 사운드 닉터를 개발한 TF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기여상은 동반 성장, 공유 가치 창출(CSV)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KT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다. ‘DMZ 대성동 5G 빌리지 TF’는 세계 유일 무이 비무장지대(DMZ) 5G 빌리지 구축으로 미래 플랫폼 시장 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 ‘1등 워크숍 외부확산 T F’는 KT 고유의 기업문화로 자리한 1등 워크숍을 공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에 확산하고 있다.

그룹사에서는 금융·IT 분야의 성공적 진출로 750억원이 넘는 수주액을 달성한 KT DS와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두며 한국 프로야구에 새 바람을 일으킨 KT 위즈 야구단이 영예를 차지했다. KT IS, KT CS가 참여한 ‘고객서비스 1등 V-TF’는 2019년 콜센터 품질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고객인식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창규 회장은 “대한민국 통신역사와 함께해온 KT가 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KT가 5G 기반의 AI 전문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1등 KT인상 수상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KT, 케냐서 ICT로 감염병 예방 나선다

글로벌 감염병 방지 플랫폼 ‘GEPP’

똑한 여행’을 말한다.

GEPP 케냐 서비스는 케냐 보건부와 케냐 1위 통신사업자인 사파리콤 간의 데이터 교환을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케냐 국민이 애볼라 발병국인 콩고 민주공화국(DRC)을 방문하면 사파리콤을 통해 GEPP 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코드를 받게 된다.

고객이 접속코드를 입력해 ‘GEPP 케냐’에 접속하면 애볼라 감염병 정보·감염증상·예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증상이 발현될 경우 국가검역본부로 연락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번호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고객이 애볼라 발병국에 머물렀다는 정보를 국가검역본부에 알려 감염에 노출된 국민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GEPP 케냐는 질병명, 발병지역, 노출현황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케냐 보건부에 검역용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부품이 탑재돼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모빌리티 시대에 자동차 실내는 휴식, 여가, 업무, 취침 등 모든 일상 생활이 가능한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2024년 신기술이 적용된 시트 양산을 목표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추후 협업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